

美 최루가스 쏘며 이민자 국경 행진 저지

이민자들 "망명 받아달라" 시위 5000여명 국경 인근서 노숙 샌디에이고 검문소 보행 금지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접한 멕시코 국경 도시 티후아나로 몰려든 중미 출신 이민자 수백 명이 25일(현지시간) 자신들의 조속한 미국 망명 신청을 압박하려고 멕시코 티후아나와 접한 미국 샌디에이고 국경을 향해 무력시위를 벌였다고 밀레니오 TV 등 현지언론과 외신이 보도했다. 이민자들은 이날 손으로 그린 미국과 온두라스 국기를 들고 "우리는 범죄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국제 노동자들이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미 국경을 향해 행진했다. 플라스틱 보호 장구를 착용한 멕시코 경찰이 미국 국경 검문소 앞에서 행진하던 이민자들을 막았지만 일부는 넘어섰다. 일부 이민자 남성들이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있는 콘크리트 수로를 가로질러 국경을 넘어려고 시도하자 미 요원들이 최루가스를 쏘며 저지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부모를 따라 행진에 동참한 아이들이 최루가스 폭발음에 놀라 비명을 지르며 기침을 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미 국경 순찰 헬리콥터가 국경을 따라 저공비행을 하고 미 요원들은 국경 철제 펜스 뒤에서 경계를 섰다.

현재 멕시코를 경유한 5천여 명의 중미 이민자가 티후아나의 스포츠 단지 주변에서 노숙하고 있다. 중미 이민자 대다수가 미국 망명신청을 희망하고 있지만 산 이시드로 미 국경검문소는 하루에 100건 미만의 망명신청을 처리하고 있다. 시위가 격화하자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 국경보호국(CBP)은 이날 샌디에이고-티후아나 국경에 있는 산 이시드로 검문소에서 양방향에 걸쳐 교통과 보행자의 통행을 전면 금지했다. 이민자 권리 지원단체인 푸에블로 신 프론티에라스의 이리네오 무히카는 "이날 행진은 이민자들이 처한 곤경을 멕시코와 미국 정부가 더 잘 보게 하려고 이뤄졌다"며 "우

리는 모든 이민자를 이곳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캐리밴(중미 이민자 행렬)이 속속 몰려들자 인구 160만 명이 거주하는 티후아나의 후안 마누엘 가스틀롬 시장은 지난 23일 중미 이민자가 5000명에 달하면서 인도주의적 위기에 봉착했다며 유엔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가려는 중미 이민자들이 미국의 망명 심사 기간 멕시코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방안이 양국 정부 간에 합의됐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지만 다음 달 1일 출범하는 멕시코 차기 정부는 "안전한 제3국 역할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159〉 이길보

이길보(李吉甫, 758-814)의 자는 흥현이며 조군 출신이다. 당 현종때 재상으로 발탁되어 변진 세력을 억제하는데 노력했다. 814년 병으로 급사했다. 질서관찰사와 어사대부를 역임한 이서군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필력이 뛰어났다. 26세때 왕조의 전통과 제도에 밝아 태상박사에 발탁됐다. 이후 공부의 둔전원외랑, 예부의 가부원외랑이 되었다. 원로대신 이필과 두창이 그의 재주를 크게 아꼈다. 육지가 재상이 되자 당파에 깊이 연류된 것으로 의심해 저장성 명주자사로 좌천시킨 다음 충주자사로 기용했다. 지방으로 좌천되었지만 육지를 잘 섬겼다. 육지가 이를 부끄러워하여 서로 깊이 교류하게 되었다. 10여년간 유주

강서 복건 호남 등 8도 49주 1백22만 호에서 거두었는데 현종 시대의 수입에 비해 4분의 3이 줄었다. 지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에서 관례적으로 실시해 온 중앙에 대한 진봉과 헌납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808년 거인(學人)을 발탁하는 시험을 실시했는데 이길, 우승유, 육훈, 황보식 등이 당시 정치의 잘못을 논해 재상인 이길보를 깎아내렸다. 그가 황상에게 울며 하소연해 시험을 담당할 배가와 양애를 파직시켰다. 이어 보군과 가부원외랑이 되었다. 원로대신 이필과 두창이 그의 재주를 크게 아꼈다. 육지가 재상이 되자 당파에 깊이 연류된 것으로 의심해 저장성 명주자사로 좌천시킨 다음 충주자사로 기용했다. 지방으로 좌천되었지만 육지를 잘 섬겼다. 육지가 이를 부끄러워하여 서로 깊이 교류하게 되었다. 10여년간 유주

현종때 재상, 변진 세력 억제에 노력

자사, 요주자사 등 지방직을 전전하면서 변진의 폐해를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현종이 805년 즉위하자 황제의 조서를 담당하는 이부낭중이 되었고 이어 한림학사, 중서사인으로 승진했다. 807년 중서시랑 겸 동중서문하평장사로 기용되어 재상 반열에 올라섰다. 눈물을 흘리며 중서사인 배기에게 말하기를 "강희로 떨어져 흘러 다닌지 15년이 넘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은혜를 입어 지금에 이르렀소. 생각하건대 은덕에 보답하는 것은 오직 어진 사람을 천거하는데 있으나 조정에 늦게 올라와 아는 사람이 드무니 그대가 나에게 잘 말해주시오." 배기가 30여명을 직접 올리자 수개월 사이에 대부분 채용하였다. 사람들이 그의 용인술을 칭찬하였다. 현종의 강력한 삭번(削藩) 정책을 적극 지지해 취임 1년만에 36개 변진을 과감히 교체했다. 특히 1급 관리 원외랑을 절도사 아래 자사로 보내 절도사를 견제토록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탁종 시기 이래로 당 왕조가 보여왔던 관용적인 태도와 크게 다른 것이다. 807년 황제의 명을 받아 원화국계부(元和國計簿)를 편찬하였다. 원화 연간(元和年間)의 국가통계를 기록한 책으로 전국에 방진이 48개 주부가 295개 현이 1453개이었다. 조세 수입은 절강 회남

명 줄었다. 정원의 25%나 되는 대대적 감축이었다. 상주하기를 "진(秦)부터 수(隋)에 이르기까지 관리를 많이 쓰기로는 당 왕조와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현종 이후 중원의 병사는 80여만이고 나머지는 장사꾼?승려?도사로 농사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이 열에 대 여섯 명이나 됩니다." 회서 지방은 탁종 시기 절도사 이희열의 난이 평정된 이래 오소성이 관할해왔다. 809년 병사하자 그의 동생 오소양이 뒤를 이었다. 814년 8월 오소양이 병사하자 그의 아들 오원제가 부친의 죽음을 알리지 않은채 절도사직을 승계하려 하였다. 그는 중앙이 방관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무력으로 회서 지역을 다스릴 것을 건의했다. 황제에게 상주하기를 "회서는 하북과 달라 지방으로 패거리가 도와줄 곳이 없습니다. 지금 빼앗지 않으면 뒤에 가서 도모하기가 어렵습니다." 한편 자신이 직접 회서에 가서 오원제를 설득할 것을 주창했다. 도발을 준비하는 도중 10월 갑자기 병에 걸려 죽었다. 상심한 현종은 그에게 사공의 직함을 내렸다. 죽기 전에 국가경영 전략을 담은 〈원화국계부〉(元和國計簿)를 편찬하였다. 원화 연간(元和年間)의 국가통계를 기록한 책으로 전국에 방진이 48개 주부가 295개 현이 1453개이었다. 조세 수입은 절강 회남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최소 85명이라는 역대 최대 인명피해를 낸, 북부 뷰트 카운티의 대형산불 '캠프파이어'가 발화 17일만인 25일(현지시간) 완전히 진화됐다. 캠프파이어는 가옥과 건물 등 1만4천여 채를 비롯해 샌프란시스코 면적의 5배에 달하는 15만4천에이커(620km)의 산림과 주택가, 시가지까지 잿더미로 만들었으며 실종자도 여전히 249명에 이르고 있다. 15일 최대 피해지인 파라다이스의 한 주택가가 완전히 소실된 모습. /연합뉴스

뉴질랜드 해변서

고래 145마리 떼죽음

뉴질랜드에서 들쇠고래(Pilot Whale) 145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다. 뉴질랜드 환경보호부는 26일 보도 자료를 통해 스튜어트 섬 메이슨 베이 해변에서 들쇠고래들이 모래톱에 걸려 떼죽음을 당했다고 밝혔다. 렌 레펜스 환경보호부 지역 담당관은 고래들이 발견 당시 대부분 죽어 있었다며 살아 있는 고래들도 너무 외진 곳에 있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상태도 좋지 않아 안락사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그는 "불행하게도 살아 있는 고래들을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는 작업의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가 외져 가까운 곳에 도와줄 주민들이 없는 데다 고래의 상태도 좋지 않아 안락사를 시키는 게 가장 인도적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대만 이어 홍콩 보궐선거 친중파 후보 승리

중 중앙정부 영향력 커질 듯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민주진보당(민진당)이 24일 대만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데 이어 25일 홍콩 보궐선거에서도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범민주파 후보가 패배했다. 2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명보에 따르면 전날 가오룽 서부 선거구에서 치러진 입법회(국회) 보궐선거에서 친중파인 천카이신(陳凱欣) 후보가 범민주파 리취런(李卓人)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다. 투표율은 44.4%로, 친 당선자는 10

만6천457표를 얻어 리 후보를 1만 3410표 차이로 앞섰다. 친 당선자는 중국과 대립하는 범민주파를 겨냥한 듯 당선 소감을 밝히는 자리에서 "나의 승리는 유권자들이 대립과 갈등보다는 그들의 복지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우산 혁명'의 상징인 우산을 든 채 선서하는 등의 행위로 중국을 자극했다. 이번 보선 결과에 따라 친중파가 홍콩 입법회를 완전히 장악하게 돼 앞으로 중국 중앙정부의 입맛에 맞춘 입법 이따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야당 진영에서 나온다. /연합뉴스

캘리포니아 산불, 17일만에 완전 진화

85명 사망 249명 실종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역대 최대의 인명피해를 낸 북부 뷰트 카운티의 대형산불 '캠프파이어'가 발화 17일만인 25일(현지시간) 완전히 진화됐다.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은 현지 소방당국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캘리포니아 주 북부 뷰트 카운티에서 발생한 이번 산불로 현재까지 최소 85명이 숨졌다. 실종자 숫자는 475명에서 249명으로 크게 줄었지만, 사망자 숫자가 더 늘어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소방 당국은 화재가 완전히 진화됐지만 당분간 잔해 더미 속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은 계속할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캠프파이어는 지난 8일 처음 발화한 이후 가옥과 건물 등 1만4000여 채를 비롯해 샌프란시스코 면적의 5배에 달하는 15만 4000에이커(620km)의 산림과 주택가, 시가지까지 잿더미로 만들었다. 특히 인구 2만7000여 명의 파라다이스 마을은 주택가와 시가지 전체가 산불에 소실됐다. 산불 피해 지역에 최근 사흘 연속 총 18cm에 달하는 비가 내리면서 불길을 잡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다음 달 2일까지 산불 피해 지역에 다시 최고 13c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실종자 수색작업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투자! (주)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상담문의. 최 선 규 H.P 010-3605-5000